

우산보다는 '비웃' 5월 6일 (음 4월 9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주	17~20℃
포항	18~20℃
여수	16~18℃
완주	16~18℃
구례	17~20℃
해남	16~18℃
장흥	16~18℃
고흥	16~18℃
순창	16~19℃
영암	17~19℃
진안	15~19℃
진천	18~21℃
영광	17~20℃
영顺	18~21℃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3.0~4.0m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3.0~5.0m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3.0~4.0m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3.0~5.0m

▲해돋이 05:37 ▲해질 19:22  
▲달출 12:48 ▲달질 02:08

목포 밀물 08:45 썰물 10:54  
여수 밀물 04:02 썰물 10:54

날짜	7(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5/26	13/27	13/28	14/21	15/21	12/22

## 주말·휴일 천둥 동반 많은 비

### 5월 기온 평년보다 높아 여름날씨 지속

'가정의 달'인 5월의 첫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3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에 따라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6일 낮에 전남 해안 지역에 강풍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 해상에서 파도가 3~5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비는 7일 오후 서쪽 지방부터 점차 겹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기상청은 '1개월 예보(5.11~6.10)'를 통해 5월 중순에는 따뜻한 남서기류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6월 초에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5월 중순에는 남서기류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12~18도)보다 높겠고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2차례 다소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한 13~20도, 13~59mm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6월 초순에는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에 따라 다소 많은 비가 내리 강수량이 평년(28~83mm)보다 많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인조인간 로봇 '에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내최초로 개발한 인조인간 로봇 '에버원'. 어린이날을 앞두고 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공개된 이 로봇은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닮았으나 표정도 짓고, 수천 개의 문장도 말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완도 금일도 마지막 해녀 강양입씨

# “사라져가는 해녀 아쉽지만 어찌겠어”



“사시사철 물질을 열두 마디 안 꾸는데가 없지 만 며칠만 쉬면 바닷속이 궁금해서..”

최근 삼성의 광고모델로 뽑혀, 신문 지면과 방송을 타면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해녀 강양림(48·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씨.

### 삼성 광고모델 전곡서 유명세

제주도 성산을 원경리가 고향인 강씨가 물질을 시작하는 것은 16세 때. 당시 제주도에서 태어난 여느 소녀들처럼 동네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물질을 배웠던 강씨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바다를 일터 삼아 1남2녀의 자식들을 잘 키워냈다.

완도가 고향인 남편 손내유(56)씨와 결혼하면서 완도에 정착한 강씨는 하루 4~6시간씩 청정해역으로 유명한 완도 금일도의 바닷속을 누비고 있다. 수심 5m에서 자라는 해삼과 전복, 다시마 등을 따

올리며 강씨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해 300여만원. 파도가 높거나 물속 시야가 흐릴 경우는 작업을 할 수 없어 1년 중 6개월 가량밖에 작업을 하지 못한다. 그나마 최근에는 바닷속 자원이 고갈되면서 수입이 크게 줄고 있는 게 강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강씨가 이 시대 마지막 해녀 소리를 듣는 것은 강씨와 함께 물질을 하고 있는 동네 해녀 6명(60대 1명, 50대 4명) 중 가장 젊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20대와 30대가 간혹 있긴 하지만, 완도에서 활동중인 20여명의 해녀 가운데 강씨가 가장 젊다. 이곳 해녀 대부분이 물질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씨가 완도의 마지막 해녀인 셈이다.

강씨는 “물질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게 수십번인데 누가 자식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겠느냐”면서도 “사실은 아무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강씨도 30년 이상의 물질 덕에 40대의 나이에 벌써

만성 관절염과 두통, 근육통,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한번 잠수할 때마다 두통약과 진통제를 한 줍씩 입에 털어 넣어야 한다.

강씨는 올 4월 초에 삼성의 광고모델로 전격 발탁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 “30년 물질로 1남2녀 키워”

동네서 ‘가장 나이 어린’(?) 해녀라는 점 때문에 광고 모델 주연으로 발탁된 것이다. 강씨는 이틀간 탤런트 윤은혜씨와 함께 바다와 보건의소를 배경으로 촬영했다. 강씨는 “막내딸과 스물셋 동갑인 윤은혜가 촬영 내내 아껴도 주물러주고 딸 같이 살기위해서 시간가는 줄 몰랐다”며 “동네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해서 나갔는데, 약간의 수고비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완도=정은주 취권기자 cki@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나원침 (6821)



## 휴대폰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9명 적발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광주 모 구청장 예비후보 L모(68)씨와 서구지역 구의원 예비후보 K모(36)씨 등 후보자 4명,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5명 등 총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발각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23일부터 지난달 14일 사이에 해당 선거구민 휴대전화에 소위 ‘웹 투 폰(Web To Phone)’ 방식으로 지지 호소문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 3천 300건~5만4천건 상당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날마다 오늘 같았으면...”

### 어린이 날 다채로운 행사...석탄일 봉축 범요식도

제84회 어린이날과 불기 2550년 석가탄신일이 겹친 5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함께 각 사찰에서는 봉축 범요식과 연등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광주에서 경기를 갖는 프로 야구 기아 타이거즈와 프로축구 광주 상무는 각각 어린이를 위한 영화 상영과 팬사인회 등을 열고 어린이 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날 북구 운동 어린이대공원에서 특공대 무술시범, 경찰 사이카 시승체험 등을 결집인 행사를 펼쳐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다.

광주시립미술관도 ‘신나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열고 가구 만들기 체험 ‘아빠랑 똑딱딱’, 동화나라 독후감 쓰기 대회 등이 차례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순천 송광사에서 승려와 신도 등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축 범요식이 봉행 됐으며, 장성 백양사에도 신도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요식이 열렸다.

제1회 백양사 분·말사 폐불특별전이 열리는 백양사에는 이날 신도와 일반인들이 3천여명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해남 대흥사와 구례 화엄사, 곡성 관음사 등 유명 사찰을 비롯한 도내 500여개의 사찰에서도 봉축 범요식이 봉행 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어린이날인 5일 전남대학교 대강당 앞 마당에서 펼쳐진 ‘어린이 베품시장’. 어린이들이 쓰던 물건을 들고 나와 팔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평택 기지이전터 철조망 설치

한명숙 총리는 5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전 과 관련,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반대 측과 충돌이 있었는데 대해 유감”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미군기지이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철조망 설치 등은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 등을 위해 일정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국방부와 경찰은 4일 새벽 미군기지확장이전지역내 대추분교(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 대한 강제퇴거(행정대집행)와 기지이전터 철조망 설치작업에 전격 착수, 10시간만에 종료했다.

경찰은 대추분교에서 시위중인 평택 미군기지확장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의 명함을 학부들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교사(敎舍)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가려는 학부모들에게도 명함을 나눠줬다.

운동장 곳곳에는 다른 후보의 명함들이 골라다니고 있었다. 학부모들이 끊임 없이 손에 쥐어주는 명함을 처리하지 못

## 초등학교 운동회 ‘선거운동’ 극성

### 학교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 몰려 명함 ‘폭탄’

어린이들의 축제인 초등학교의 운동회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후보자들의 ‘선전장’으로 변질됐다.

지난 4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문흥초등학교 앞. 운동회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 04도59XX 클럽 승용차가 부리나케 달려오더니 횡단보도에 멈춰섰다.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주·점차 금지구역’이라는 팻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명함 200여장을 양손 가득 든 채 학교로 들어갔다.

그들은 자녀의 경기를 한창 지켜보고 있던 학부모들에게 다가 “○○당 예비후보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인사를 한 뒤 명함을 돌렸다. 오전에 용차가 부리나케 달려오더니 횡단보도에 멈춰섰다.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주·점차 금지구역’이라는 팻말은 아랑곳

같은 시각 광주시 북구 일곡동 일곡초등학교에서도 똑같은 광경이 벌어졌다.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무소속으로 북구위원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의 명함을 학부모들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교사(敎舍)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가려는 학부모들에게도 명함을 나눠줬다.

운동장 곳곳에는 다른 후보의 명함들이 골라다니고 있었다. 학부모들이 끊임 없이 손에 쥐어주는 명함을 처리하지 못

해 버린 것이다. 이 학교에는 음식물쓰레기보다 후보자들의 명함이 더 많이 버려져 있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광주의 13개 초등학교 중 운동회를 개최한 학교는 100여개. 대부분의 학교가 운동장에서 텀밭이 되며 경기를 한 학생들에게 3일간의 휴식을 주기 위해 이날 운동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홍보의 장’이었다.

학부모 양모(여·37)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알리려는 후보자들의 심정은 이해 하지만, 어린이들의 축제인 운동회까지 찾아와서 극성을 떨어야 하나 싫다”고 말했다. /임주형·이승배기자 jhlim@kwangju.co.kr

### 14층서 떨어진 5살배기 목숨 건져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한 다섯 살배기 어린이가 때마침 분 반발 덕분에 차랑 위로 떨어져 골절상만 입고 목숨을 건져 안도.

○지난 3일 오후 8시경 광주시 북구 연제동 S아파트 14층에서 살고 있는 주모(5)군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30여m 아래로 떨어졌으나 양쪽 다리와 오른쪽 갈비뼈가 부러지고 간에 다치는 부상을 입고 입원.

○병원 측과 가족들은 주 군이 추락할 당시 강한 바람이 불어 다행히 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승합차 유리창으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크게 줄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추정.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